

山林資源保護와 所得源開發積極推進



- 산불, 病害蟲防除, 流通構造改善에 力點 -

李 芝 馥 林政局長

1992 年은 우리山林行政에 있어서는 山林資源化 10年計劃의 第5次年度이며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의 첫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重要한 해를 맞이하여 今年度 林政局의 主要施策事業은 ① 山林病害蟲 防除 ② 山地淨化와 산불防止 ③ 流通構造改善 및 農山村所得源開發 ④ 海外山林開發擴大 推進 ⑤ 山林開發資金의 劃期的 增大등에 力點을 두고 推進해나갈 計劃이다.

첫째 : 山林病害蟲의 徹底한 防除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約 6%인 367千ha가 各種 山林病害蟲의 被害를 입고 있는 實情이다.

그중 가장 고질적인 被害를 입하고 있는 病害蟲은 224千ha의 솔잎혹파리와 10千ha의 솔껍질깍지벌레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全 山林行政力を 集注, 『總力防除體制』로 突入하여 病害蟲防除에 最善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 病害蟲防除 計劃面積은 總發生面積

의 61%인 225千ha로 策定하고 投資額도 작년보다 51億원이 增額된 199億원(國庫 97億원)을 投入하여 솔잎혹파리 51,900ha, 솔껍질깍지벌레 7,320ha, 소나무 材線蟲 1,820ha의 防除에 總力を 傾注하는 한편 흰불나방 등 其他 突發害蟲 164,210ha를 現位置에서 撲滅하므로써 애씨 가꾸어온 山林資源을 積極 保護해 나갈 計劃이다.

둘째 : 山地淨化와 산불防止

해마다 산을 찾는 人口가 急增하고 산에 오르면 으레히 烹事行爲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등 山行秩序의 물란으로 山林의 汚染이 날로 深刻하여, 지난해부터 山林내 烹事行爲 및 쓰레기 投棄行爲禁止의 法的, 制度的 措置를 講究하고, 對國民啓導와 弘報에 注力하면서 違反者에 대한 圍束을 強化한 結果 現地 烹事의 激減 등 山行秩序에 대한 肯定的 理解雰圍氣와 國民的 共感帶가 造成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未治한 實情일 뿐만 아니라 入山者들의 不注意로 인한 산불發生이 年平均 산불發生件數(199

件)의 30%(60件)나 차지하고 있음을勘案할 때, 娛樂과 炊事爲主의 山行文化를 情緒醇化와 心身鍛鍊爲主의 山行文化로 하루속히 定着시키는 것이 主要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따라서 山地의 汚染防止와 산불豫防을 爲한 山行秩序를 確立하기 爲하여 對國民 啓導와 弘報에 注力하면서 着實하게 山行秩序를 確立 定着시켜 나갈것이며, 특히 다음 事項에 重點을 두고 推進할 計劃이다.

○山地의 淨化對策

入山者의 往來가 頻煩하고 쓰레기에 의한 山地污染 褒慮地域으로서 山地淨化와 保護上 必要한 地域을 入山統制區域으로 指定하여 監視員을 集中配置함으로써 入山者의 徹底한 統制와 指導啓蒙을 強化하는 한편 入山許容地域内에서도 炊事行爲를 原則的으로 禁止시키고 例外的으로 申告된者的 炊事에 있어서도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오기 運動』을 展開하여 山地污染을 防止해 나갈 計劃이다. 이를 爲해 今年 3月 1日부터 全山林行政力を 動員하여 集中的인 團束을 通하여 山林內 無斷炊事行爲者와 火器 및 引火物質所持入山者에게는 10萬원以下の 過怠料를, 山林内에 汚物이나 쓰레기를 버린 者에게는 200萬원以下の 過怠料賦課를 嚴格히 執行하므로써 산에서 쓰레기를 마구버리는 國民意識을 轉換시킴과 同時に 山地淨化事業도 便宜施設을 年次의 으로 擴充해 나가기 위해 炊事場, 쓰레기場, 火氣物保管所를 각각 100個씩 設置運營 하므로써 山林이 國民의 깨끗한 休息空間으로서의 제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산불防止體制의 構築

今年度에도 산불脆弱時期인 봄철(3. 1 ~ 5. 31)과 가을철(11. 15~12. 15)을 산불조심期間으로 定하고 이 期間동안 全國市·郡·區 및 營林署單位 機關에 산불防止對策本部를 設置하고 非常勤務體制를 確立하여豫防爲主의 根源的防止體制를 講究함으로서 산불防止와 早期鎮火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豫防措置를 爲해 산불脆弱地域에 대한 入山統制區域을 2,942個所(1,264千ha) 指定하고 登山路 477個所(2,318km)를 閉鎖措置하며 산불監視要員 12,867명을 脆弱地爲主로 集中配置하여 啓導와 監視活動을 展開하는 한편, 山林안에서의 炊事行爲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境遇의 申告를 除外하고는 全面森止케 하고, 벼너등의 火器 및 引火物質의 監視保管所를 登山路入口등에 設置運營하여 所持入山을 禁止토록 하며 이를 強力團束함과 同時に 논·밭두렁 및 農產廢棄物燒却에 대한 統制를 邑·面洞長이 責任管理케 하므로서 산불被害를 根本的으로 防止하는데 온갖 努力を 다할 計劃이다.

○산불鎮火體制 確立과 裝備擴充

地上 및 空中監視를 通한 산불早期發見, 早期申告體制를 強化하되 里·洞單位 및 邑·面單位 特別鎮火隊等 각급 鎮火隊를 再整備 補強하고 持續的 鎮火訓練으로 鎮火能力을 培養해 나갈 計劃이다.

鎮火裝備의 確保狀況은 地上裝備로서 鎮火道具 87,982組, 등집펌프 21,567臺, 携帶用無電機 7,342臺, 動力泵 1,827臺, 動力泵 504臺, 防火服 12,828着 등을 確保管理하고 있으며, 空中裝備로는 헬기 13臺를 確保하였고 今年度에도 動力泵 70臺, 携帶用無電機 400臺, 防火服 980着을

補強하며 헬기 3臺를 追加導入하여 總 16臺의 헬기를 脆弱地域為主로 各 市道에 集中機動配置하여 初動鎮火에 對處하므로써 산불被害을 最小化하도록 強力히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셋째：林產物流構造 改善 및 農山村所得源開發

林產物 生產量이 每年增加됨에 따라 流通市場 또한 規模화하는 趨勢이나 林業經營의 專業化가 아닌 零細的인 副業化로 林產物生產基盤이 脆弱하고 少量分散 生產者市場交涉力 미약으로 需要寡占的인 企業과 中間商人이 去來價格을 左右하고 있기 때문에 生產者와 消費者의 不利益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山主 實質所得 提高와 消費者 權益保護를 為한 林產物流構造改善이 무엇보다도 時急한 課題이다.

따라서 이의 改善을 為하여 山林組合을 林產物流專擔機關으로 育成하고 林產物流通市場 構造調整에 必要한 流通施策의 早期擴充과 既設置한 流通施設의 運營 活性化에 力點을 둘 方針이다.

이러한 基本方針의 效率의in 推進을 為하여 樹實, 山菜, 벼섯 등 短期所得林產物에 대하여는 生產指導와 連繫한 協同出荷班을 組織運營토록 하므로써 作業共同, 機械·施設의 共同利用과 出荷時期, 方法의 協同으로 生產費와 出荷費를 節減함과 同時 市場交涉力を 強化토록 하겠으며, 生產物의 圓滑한 流通을 為하여 全 山林組合을 對象으로 한 체인網을 構築하여 委託·買取販賣 및 共販事業의 積極 實施등 林產物流仲介機能을 強化할 計劃이다.

아울러 流通市場 構造改善에 必要한 基

盤施設을 山林組合에 2000年까지 林產物直賣場 17個所, 木材集荷場 33個所, 林產物流通센타 50個所, 林產物加工工場 10個所 등 110個所 設置를 目標로 하고 있다.

現在 設置運營되고 있는 流通施設은 大都市 消費者에 林產物直賣場 6個所(서울, 全州, 大田, 昌原, 春川, 光州)와 林產物 多量 生產 및 集產地에 木材集荷場 6個所(加平, 聞慶, 平昌, 堤川, 南原, 華城) 林產物流通센타 6個所(晋陽, 永同, 錦山, 扶安, 康津, 昌寧) 林產物加工工場 2個所(牙山, 加平) 등 20個所가 設置되어 있는 한편

今年에도 11億원의 國庫를 投資하여 林產物直賣場 1個所, 木材集荷場 2個所, 林產物流通센타 5個所, 林產物加工工場 1個所 등 9個所의 流通施設을 新規로 設置토록 하므로써 生產者와 消費者 直去來 擴大로 流通段階로 短縮토록 할 計劃이다.

最近 無公害自然食品의 選好傾向 擴大와 더불어 山林內에서 生產되는 밤, 벼섯, 山菜 등 山林副產物의 消費가 增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多樣한 林產物의 山林所得源開發을 積極推進하여 林業의 長期投資에서 오는脆弱性을 克服하고 山地를 集約的으로 活用해 나갈 計劃이다.

이를 為하여 山林副產物 主要生產地를 主產團地로 指定하여 資金 및 技術을 集中支援하고 있으며, 翌年度 資金需要調查를 實施하여 調查된 需要에 대한 資金의 最優先 支援을 制度化 하고 있다. 또한 貯藏·加工·流通施設을 主產團地와 連繫하여 設置토록 함으로써 生產·加工·流通이 體系的으로 連結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이를 為하여 올해에는 資金支援을 大幅擴大하여 밤 出荷調節用으로 100億원, 利用加工施設 設置用 3,150百萬원, 利用加工

原資材 購入用 2,170百萬원 副產物 生產資金 1,950百萬원, 貯藏施設 設置資金 1,120百萬원등 總 18,390百萬원을 支援하여 山林副產物의 附加價值를 높이도록 最善을 다할 計劃이다.

넷째 : 海外山林開發의 擴大

今年도 우리나라의 木材 總需要量은 昨年보다 6%가 增加된 11,303m³으로서 그중 14%인 1,622千m³는 國內材로 供給하고 86%인 9,681千m³는 外材로 供給할 計劃이다.

產業社會의 進展에 따라 우리의 목재수요는 漸次 증가되고 있으나 國內資源은 아직 幼令林狀態에 있을뿐 아니라 世界山林資源國마저 自國 木材工業 育成과 環境保全意識의 擴散으로 伐採量 減少와 資源輸出規制가 擴大되고 있어 外材導入 與件은 더욱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木材의 長期安定的 供給을 為해서는 海外資源開發進出이 積極的으로 이루어야 한다. 지난해는 大字의 미안마 進出을 비롯한 5個業體가 새로이 進出함으로서 海外山林開發에 活性화를 期한 한해였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大洋州 中南美, 러시아연방공화국등 原木輸出 未規制 地域으로의 進出을 積極 誘導하는 한편 原木開發에서 製材木, 單板, 칡, 가구부품등 半製品이나 完製品의 直接開發導入도 立行 推進해나갈 計劃이다.

더욱이 南洋材의 資源確保與件이 惡化되고 있음을勘案할 때 우리의 南洋材中心의 木材消費패턴을 松柏類, 北洋材로 漸進의 인 轉換을 誘導하면서 北洋材 利用增進을 為한 才質 및 用途開發에도 注力해 나갈 計劃이다.

다섯째 : 山林開發資金의 劃期的 擴大

今年度 山林事業에 支援될 林業資金의 運用規模는 總 608億원으로 昨年(336億원)對比 81%를 增額 策定하였다.

이를 資金別로 보면 山林開發基金 89億원, 農漁村發展基金 247億원,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272億원이 支援될 計劃이다.

또한 資金別 融資對象事業別로 보면, 山林開發基金(年利: 3%)에서 造林·育林·間伐事業에 26億원, 林道施設 21億원 山林組合事業 22億원, 林業後繼者育成 10億원, 其他篤林家育成 등 10億원이며, 農漁村發展基金(年利 3~8%)에서 養苗資金 76億원(5%), 休養林造成 34億원(3%), 林道施設 및 補修(補助) 20億원(3%), 山林經營裝備 7億원(3%), 造景樹 및 盆栽素材生產 20億원(5%), 短期所得林產物生產 19億원(5%), 林產物利用加工源資材購入 22億원(5.5%), 利用加工 및 貯藏施設 49億원(5%, 단 生產者 및 生產者團體 以外의 者는 8%) 등이며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에서 밤出荷調節資金(年利 5%) 100億원, 輸出促進資金(年利 8%) 172億원이다.

그리고, '91까지 材特資金에서 支援되던 山林事業資金은 '92年부터 農漁村發展基金에서 支援토록 制度가 變更되었으며 기히 支援받은 財特資金의 融資期間 및 利子率은 從前과 같이 運營된다.

특히 今年에는 事業別 融資限度額을 大幅 늘리고 融資單費도 現實化하는 한편 融資具備書類의 減縮 및 篤林家에 대한 信用貸出限度額을 林業後繼者와 같이 1千萬원으로 擴大하여 林業投資與件을 크게 改善하였다. ★